

일본기업들의 사업재편은 계속되나요?

일본에서 채산성이 악화된 사업을 중단하고 경영자원을 새로운 유망 분야로 옮기는 기업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1. 사업재편을 해야 하는 이유

- 일반적으로 어떠한 제품과 서비스든지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이른바 라이프사이클이 있음
 - 대부분의 기업은 연구개발의 성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설비투자를 해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는 수순을 따라감
 - 출시한 제품이 성공하게 되면 추가로 투자를 해서 증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외에 공장을 세우기도 함
 - 신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다른 회사도 따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 증산체제를 갖추어 대량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어떤 제품이든지 시장에서의 판매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원하는 소비자의 대부분이 제품을 가지게 되면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판매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며, 다른 회사에게 시장을 내주는 경우도 발생하게 됨
 - 이런 상황에서 남은 설비와 인력을 그대로 두면 적자가 늘어나 기업실적은 악화됨

- 이런 상황에서 필요해지는 것이 이른바 구조조정 혹은 사업재편임
 - 사업재편은 불필요한 설비를 폐기처분하여 고정비를 삭감함으로써 채산성을 개선한다든지, 자금과 인력을 미래성장분야로 옮기는 것을 말함
 - 바꿔 말하면 한정된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2. 최근 사업재편 사례

- 일본에서 종합화학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츠비시화학(三菱化学)이 지난 2011년 봄 염화비닐수지의 국내생산을 중단했음
 - 금융위기 이후 나일론 수지사업 등 매출액 합계로 약900억 엔에 달하는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한 것임
 - 이들 사업이 국제경쟁력을 잃고 채산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한편 미츠비시화학(三菱化学)은 태양전지,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등 환경분야로 채산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였음
 - 이미 약 300명의 종업원을 신규 사업 분야에 새롭게 배치 전환하였음
-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세계수요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많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Q&A 日本経済100の常識, 日本経済新聞社